

# “초기불교, 부파불교와 다르다”

초기불교 경전인 ‘빠알리 니까야’의 한글 번역서가 잇달아 출간되고, 초기불교 수행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반면 한쪽에서는 ‘초기불교 근본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들린다.

불교 계간지 <불교평론> 봄호(통권 14호)가 특집으로 다룬 ‘초기불교를 다시 본다’는, 그 어느 쪽이든 제대로 된 초기불교 이해를 통해 오늘의 한국불교를 다시 보자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중표 교수가 전남대 철학과는 “초기불교는 대승불교에서 비판하는 부파불교가 아닌데도 <아함경>과 같은 초기불교의 경전이 부파불교에 의해 전승돼 왔고, 부파불교의 소의경전이기 때문에 대승불교권에서는 소승경전으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왜곡의 결과는 대승불교에 대한 이해마저 왜곡시켰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가 초기불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초기불교가 대·소승을 포함한 모든 불교의 뿌리이고, 후대의 불교는 모두 초기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초기불교는 대승불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초기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승

## 엄연한 차이 불구 대부분 소승으로 오해 “초기불교만 올바른 가르침” 고집은 잘못

### ‘불교평론’ 봄호 초기불교 특집



“초기불교는 불교가 분열하기 이전의 불교를 말한다. 따라서 대승불교에 의해 소승불교로 비판받았던 부파불교와 초기불교는 엄연히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기불교를 소승불교로 오해하고 있다.”

최근 한국불교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녔던 ‘간화선 위기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초기불교가 조명을 받고 있다.

불교는 결코 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기 교단사를 전공한 이자랑 박사(동국대 강사)는 출장에 나타난 인도불교 승단의 생활을 살펴봤다. 이 박사는 “출장에서 확인되는 인도불교 승단의

모습은 의외로 재가신자와의 접촉도 빈번하며 의식주에 관해서도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출가의 목적이 의식주 생활의 제한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에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인도불교 승단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출가자의 신분

에 어울리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재가신자의 평가였다는 점이다. 이 박사는 “불교 승단은 재가자의 평판에 매우 민감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출가의 수많은 규정이 재가자의 권유나 비난을 계기로 제정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출장을 통해 이해하는 한, 재가자의 눈에 비친 모습과 그 판단이 출가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초기불교 수행의 요체인 팔정도(八正道) 수행법인 사념처법과 호흡관법을 소개한 미산 스님은 “초기불교 수행법이 후기에 발달된 모든 불교 수행법의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 토대를 이루긴 하지만 초기불교만이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고 그밖의 다른 전통은 붓다의 근본 가르침에서 이탈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불교의 바른 수행 전통을 보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질(4)

## 열려있는 불국토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천년의 역사를 가꾸어왔다. 고구려와 백제가 수도를 두세 차례 옮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라인에게 있어서 경주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신성한 이상세계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신선사상의 이상적인 선계(仙界)를 지금 무열왕릉의 뒷산인 선도산(仙桃山)으로 삼았고,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낭산을 도리천(勿利天)으로 믿고 그 위에 선덕여왕의 능을 조성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토함산 자락에 불국사라는 새로운 불국토를 건립하였다. 신라인들이 경주를 성역화한 흔적은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의 불국토인 불국사는 석가정토와 아미타정토로 이루어졌다. 먼저 석가정토를 들어가 보자. 푸른 구름과 흰 구름

이 화엄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상중에 의한 것인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적으로 보면 부처님별로 전용 공간을 마련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불상은 7세기에 와서 비로소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 등 도상적 구별이 나타나는데, 사찰의 공간에서는 불국사에서 그러한 특징이 보인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불국사의 건물 가운데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은 홀로 된 기단과 탑, 주춧돌 정도이다. 대웅전과 극락전, 그리고 회랑 일부는 18세기에 재건한 것이고, 나머지는 20세기에 와서 새로 복원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기단은 신라미술을 대표할 만큼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하학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두 개의 무지개 다리(홍예교), 자연스런 바위와 정연하게



◇불국사 정경. 앞 왼쪽이 아미타불 영역, 오른쪽이 석가불 영역, 그 뒤쪽에 비로자나불 영역, 그 오른쪽이 관음보살 영역이다.

## 석가정토·아미타정토로 이뤄진 불국사 홍예교·구름 상징 돌기둥 석조미술 정수

[靑雲橋와 白雲橋]을 밝고 오르면 석가불의 몸에서 발산하는 지주빛 이내로 된 문 [紫霞門]에 다다른다. 이 문을 들어서면 석가불(석가탑)이 설법하고 다보불(다보탑)이 증명하는 장중한 드라마를 목격하게 된다. 이들 탑 뒤에는 큰 영웅, 즉 석가불이 계신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웅전 뒤에는 말이 없는 전각이란 말 씀을 들을 수 있는 강당이 좌우로 길게 뻗어 있다. 그 옆의 아미타정토를 들어가 보자. 연꽃과 칠보로 장식된 다리 [蓮花橋와 七寶橋]를 오르면 서방극락의 입구임을 알려주는 안양문(安養門)이 있다. 그 문을 들어서면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전이 있는 것이다. 석가정토를 중심으로 놓고 아미타정토를 그 다음 단계로 놓았다. 이러한 구성

다듬어진 부재를 조화롭게 꾸민 석축, 구름을 상징한 석주 등은 석조미술의 정수이다. 기단은 2개로 된 다리를 올라가야 될 만큼 키를 높이 세웠다. 그 까닭은 기단 밑의 속세와 그 위의 불국토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한 고려일 것이다. 불국사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의 사찰이나 탑은 모두 기단이 높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한층 높아진 부처님의 권위와 삼국통일에서 얻은 자신감이 맞물려서 빚어낸 결과로 보인다.

토함산에 불국토를 조성한 이는 재상 김대성(金大城)이다. 그는 살아있는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성의 지극한 효심은 그의 부모를 넘어 오늘날 우리들까지 불국토로 이끌고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의 명랑법사가 사천왕사에서 유가명승 12명과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 밀교의 비법)을 행해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고, 고려 말까지 단석(壇席)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단석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 “신라 사천왕사 좌우경루 초석 문두루비법 행하던 단석이다”

### 장충식 교수 주장

동국대 장충식 교수(미술사학과)는 최근 발간된 <불교학보> 39집에 기고한 논문 ‘신라 사천왕사지 단석의 고찰’에서 금당지 후방(북쪽)의 좌·우경루(左·右經樓) 초석이 바로 문두루비법을 행하던 단석이라고 주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천왕사지의 금당지 후방에는 동서로 대칭하여 각각 12개의 초석이 토단 둘레에 ‘ㄱ’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1930년 일본학자 후지시마 이후 경루의 초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장 교수는 이 초석의 특수한 형태에 주목했다. 초석은 상면 중앙에 각기 직경 약 20cm의 원공(圓孔)이 있고, 원공

주변에 약 50cm 내의 크기의 이중 돌기선이 정방형으로 물딩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네 모서리 부분에서 사각을 이루면서 초석의 네 귀퉁이로 연결됨으로써 일종의 우동(隅棟) 형태를 취하고 있다(사진). 장 교수는 “경루라면 초석 자체가 기둥에 숨겨지기 때문에 원공이나 물딩과 같은 조형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반드시 외부에 노출을 전제로 하고 제작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남아 있는 초석이 12개가 아니고 24개일까? 장 교수는 “당시 유행했던 통일신라의 좌우대칭식 기법배치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좌우대칭이므로 24개이지만 좌우를 각기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원효 화쟁사상 노사분쟁에 적용 대립·갈등 생산적 관계로 전환”

### 김영종 교수

“노사 관계 당사자가 원효의 화쟁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이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데 유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김영종 교수(행정학)는 <원효학연구> 제7집에 실린 ‘원효의 화쟁사상에 의한 노사분쟁의 조정’을 통해 “원효의 화쟁사상은 다양한 신라시대 종교적 교리와 주장을 화해시키고 통합하는 기본적 사상이지만 오늘날 노사분쟁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비롯한 대립과 갈등의 해결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원효에 대한 연구 논문과 단행본이 1천여 권에 이르지만 노사 분쟁이나 노동 문제와 같이 현실적

인 문제와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교수는 노사분쟁이 이해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대개 노동 문제나 경영 상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노사의 일방적인 판단,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오해와 곡해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화쟁사상의 세 가지 적용 원리가 노사 갈등과 파업을 해결하는데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 교수가 밝힌, 원효가 화쟁의 원리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선개와 통합의 자유 △자기 중심주의의 배제 △상항 이해주의이다. 김 교수는 “화쟁사상의 뿌리가 되는 일심(一心)사상 또한 노사가 궁극적으로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 무궁무진한 우리 전통문양을 집대성한 한국의美 『무늬』

사진·안장현 / 글·이기선



문화재 사진작가 「안장현」의 섬세한 영상과 불교조형연구소 소장인 「이기선」의 유려한 예술이 돋보이는 한국무늬의 집대성

무늬에 관한 책이라면 지금까지는 무늬를 그림으로 옮겨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책은 무늬가 배풀어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원형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그야말로 조금도 변형되지 않은 무늬의 원광적인 책이다.

오늘날 각종 산업과 문화는 디자인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문화를 응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따라서 이 책은 미술사자들은 물론 종교인, 디자이너, 문화 애호가들에게 단비 같은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원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책의 특징

- 1) 무늬를 있는 그대로 실린 원색 사진
- 2) 충실한 자료는 답사와 연구의 길라잡이
- 3) 256페이지에 수록한 총 306컷의 풍부한 도판
- 4) 최대한 한글화한 무늬 용어
- 5) 쉽게 풀이한 무늬의 발생과 상징성

4X6 변형배판, 스노우 화이트, 총256쪽  
정가 28,000원



저승길을 가며 타는 꽃가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리는 호사가 아닌가, 더구나 무덤 가를 지키고 있는 망주석이나 장명등에도 무늬는 배풀어져 있다. 이렇듯 무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인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문양 작품들에 담긴 선조들의 장인 혼을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역시 장인의 정신으로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통해 일치시키고자 했던 저자들의 노고가 잘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의 전통 무늬에 깃들여 있는 창조적 정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새로운 무늬의 창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부디 이 책이 출간됨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해맑게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원배(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호영출판사 TEL. 02-3442-5131 FAX 02-511-1882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